

초서의 ‘이야기’와 ‘이야기하기’ : 『신부의 이야기』(*The Nun's Priest's Tale*)를 중심으로*

이 동 춘

[국문초록]

『캔터베리 이야기』 속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신부의 이야기』에서 초서는 자신만의 ‘이야기하기’ 스타일과 독자관을 고수하고 있다. 초서는 화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 한낱 ‘픽션’(fiction)에 불과하며 이야기 속 의미 파악은 독자 자신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독자로 하여금 신부가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픽션’으로 여기고 독자 스스로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초서는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 기법들을 『신부의 이야기』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물 우화라는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과 수사학적 기법들을 초서는 이야기 곳곳에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초서는 단순하며 간결한 구조와 도덕적이며 알레고리적 성격을 지닌 전통적인 동물 우화를 새로운 허구적 문학작품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주제어: 『신부의 이야기』, 동물 우화, 내러티브 기법, 이야기하기, 독자관

* 본 논문은 2018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1. 들어가는 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The Canterbury Tales*) 속 이야기들 가운데 「총 서시」 (*General Prologue*)에서 여관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하기’ 게임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인 ‘교훈’(*sentence*)과 ‘즐거움’(*solas*)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이야기가 「신부의 이야기」 (*The Nun's Priest's Tale*)가 아닌가 싶다. 신부가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로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 자체가 두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문학 장르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부가 말하고 있는 “알곡”(*fruyt*)과 “왕겨”(*chaf*)는 여관주인이 언급하고 있는 조건들 각각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3443).¹⁾ 물론 「신부의 이야기」 속에 하나의 “알곡”(도덕적 교훈)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제시하는 교훈들은 물론 화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훈들까지 뒤섞여 있어 어느 것이 핵심적이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신부가 작품 속 특정한 교훈을 독자에게 주입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교훈들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나 결정을 독자의 몫으로 돌리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동물 우화 속 권위적인 화자와는 달리 신부는 순례 독자들에게 각자 나름의 ‘해석학적 판단’(hermeneutic judgment)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화자인 신부의 의도대로 일부 비평가들은 「신부의 이야기」에서 나름의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내지 근거들을 제시해오곤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도덕적/알레고리적 해석에 또 다른 해석을 더하는 양상으로 이어졌으며, 문제는 이야기 속 다양한 교훈들처럼 이들 비평가들이 내린 알레고리적 해석들 역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신부가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²⁾ 심지어 비평가마다 내린 도덕적 해석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에서처럼 작품 속 화자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어가기 보다는 화자의 목소리가 작품 속 다양한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인물들의 목소리와 서로 얽혀 경쟁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부는 간결함과 단순함이 기본인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틀 속에 다양한 소재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인간 운명의 무상'(mutability of earthly fortune), '자유지와 예정설'(free-will and predestination), '꿈의 이론'(dream theory), '결혼에서의 주도권'(mastery in marriage), '여성이 주는 조언의 유효성'(the efficacy of women's counsel) 및 ' 수사학의 본질과 기능'(the nature and function of rhetoric) 등을 가미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digressive materials) 또한 신부가 하는 이야기 속 도덕적 교훈은 물론 화자나 시인 초서의 의도하는 바를 단정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자의 최종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화자인 신부의 성격 규명이 어려울 뿐더러 그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독자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부의 요구에 대한 여관주인의 다소 의외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부가 하는 이야기 속에는 독자가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할 만한 어떠한 도덕적 교훈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신부가 말하는 “알곡”과 “왕겨”의 균형과 조화보다는 과도할 정도의 “왕겨” 때문에 “알곡”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보다 작품에서 시인 초서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초서의 작품을 독자가 기존의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서 기인한다. 물론 이야기의 화자가 성직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동물 우화가 초서 시대 교훈적인 목적으로 즐겨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부의 이야기」가 특정의 종교적 혹은 도덕적 가르침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서가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측은 화자인 신부가 순례 독자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해석학적 요구는 물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켄터베리 이야기』 속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신부의 이야기」에서 초서는 자신만의 '이야기하기' 스타일과 독자관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초서는 화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 한낱 '픽션'(fiction)에 불과하며 이야기 속 의미 파악은 독자 자신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노력에 달려있

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 초서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한낱 언어 기호들(verbal signs) 혹은 기표들(signifiers)에 불과한 셈이다. 하워드(Donald Howard)는 이를 두고 초서의 내러티브가 “자기 발견의 이야기들”(fictions of self-discovery, 102)이라고까지 말한다. 하워드의 말처럼 초서의 「신부의 이야기」 속 다양한 교훈들을 포함한 여타 내용들 역시 허공에 맴도는 수많은 ‘소식들’(tidings)에 불과한 셈이다. 아울러 화자인 신부 역시 독자가 절대적으로 신뢰할만한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소식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있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신부가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픽션’으로 여기고 독자 스스로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초서는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 기법들을 「신부의 이야기」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물 우화라는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과 수사학적 기법들을 초서는 이야기 곳곳에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초서는 단순하며 간결한 구조와 도덕적이며 알레고리적 성격을 지닌 전통적인 동물 우화를 새로운 허구적 문학작품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초서가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기본적인 구조(패턴)와 효과, 그리고 화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인 동물 우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서가 「신부의 이야기」에 삽입하고 있는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신부의 이야기」가 초서만의 독특한 ‘이야기하기’ 스타일과 독자관을 반영하고 있는 초서의 전형적인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전통적 동물 우화의 구조와 기법

초서는 당시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였으며, 어떤 이야기 소재를 사용하면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 잘 알고 있던 전문적인 작가였다(Utley 588-99). 무엇보다 초서가 당시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를 작품의 기본적인 소재로 즐겨 삼

있던 것은 그가 항상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실제 중세 작가들 가운데 초서만큼 풍부하고 다양하게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나 로 맨스, 우화 등을 이야기의 소재로 즐겨 사용한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이야기꾼으로서 초서의 능력은 과거의 이야기를 단순히 재생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이야기 기법들을 동원하여 단순한 구조와 스타일을 지닌 전통적인 이야기를 창작에 버금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데서 드러난다. 초서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기법들 역시 단순히 과거 전통적인 이야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나, 이보다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분위기와 효과를 전달하기 위한 그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신부가 하는 이야기 역시 당시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교훈적인 성격의 동물 우화에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서만의 이야기 기법들이 동원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³⁾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부의 이야기」에서 초서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당시 도덕적 가르침을 위한 '기능적인 모드'(functional mode)의 동물 우화를 '허구적 이야기'(fabular tale)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Narkiss 47).

초서가 이야기에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화자는 물론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기본적 패턴(구조)과 함께 전통적 내러티브에서 화자 및 독자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자인 신부는 자신의 이야기가 동물 우화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내가 알기로, 그 당시에 / 동물들과 새들은 말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었답니다”(as I have understonde, / Beestes and briddes koude speke and synge, 3070-71)라 말하며 분명히 하고 있다.⁴⁾ 이밖에도 꿈에 대한 챌티클리어(Chauntecleer)와 퍼텔롯(Pertelote)의 긴 공방(攻防)에 이어 화자는 이야기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 “자 이제 이야기의 화제로 돌아갈까 합니다”(Now wol I torne agayn to my sentence, 3215)라 말하며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동물 우화임을 독자들에게 재차 확인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여우의 등장을 두고 ‘예정설’과 ‘자유의지’를 언급한 화자는 다시 한 번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본질이 수탉과

관련한 동물 우화임을 독자들에게 주지시켜준다. 화자가 이야기 도중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목소리를 개입시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동물 우화임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의 이야기가 동물 우화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처음부터 화자가 과거 전통대로 동물 우화를 독자들에게 들려 줄 의도였다면 이야기의 플롯을 훨씬 더 단순하고 간결하게 처리했어야 할 것이다. 「신부의 이야기」에서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시작부분은 3187행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주인공인 찬티클리어가 소개된다(3196-97). 여기에서 화자는 찬티클리어의 타고난 본능, 다시 말해서 시간이 되면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찬티클리어의 목소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수탉이 우는 모습이나 울 때 눈을 감는 습관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naturalistic element)은 전통적인 동물 우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이야기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뒤이어 여우가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우의 교활하고 은밀한 본능을 화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3215-25). 여우의 타고난 본능, 그리고 가금류(家禽類)를 좋아하는 여우의 습성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보편성과 일 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요소들 외에 우화, 민담 혹은 로맨스와 같은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repetition), 변이(variation) 혹은 대체(substitution)가 신부가 하는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반복과 변이 등의 기법은 마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독자를 ‘극적 환상’(dramatic illusion)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는 일종의 ‘최면효과’(effect of incantation)와 같은 것으로 독자는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는 지닌다(Wittig 11-16). 첫 번째 내러티브는 수탉의 타고난 목소리를 교활하게 이용한 여우에 의해 수탉이 비극으로 치닫는 내용이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여우의 타고난 교활함을 이용하여 수탉이 비극에서 벗어나고 반대로 여우가 상실을 맛보게 된다. 물론 이 같은 동물 우화의 기본적인 틀 속에 화자는 수시로 들어와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주입하곤 하는데, 화자의 이 같은 빈번한 개입만 제거

된다면 신부가 하는 이야기의 3187행부터 나타나는 플롯의 간결함과 단순함 그리고 반복 및 대체 기법은 「신부의 이야기」가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전통을 어느 정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화자의 빈번한 개입과 지나칠 정도의 수사학적 표현들만 제거된다면 이중적 내러티브 구조(doubling), 수탉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반대로 여우의 회복과 상실이라는 반복 및 대체를 통하여 화자로서 신부는 자신의 원하는 도덕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주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3187행부터 이야기의 전개나 흐름을 방해하는 화자의 개입, 다양한 인용 및 수사학적 표현들과 같은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만 제거된다면 전통적인 우화에서처럼 신부가 하는 이야기의 플롯은 매우 단선적이며 직선적인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독자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사건의 흐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3187행부터는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나 사건을 둘러싼 어떠한 사실적 배경 설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몰입 정도는 더 강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바꿔 말하자면, 전통적 동물 우화의 기본적 구도나 내용을 가리고 있는 주변적인 것들, 예를 들어 화자가 이야기에 삽입시킨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이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변적 요소들만 제거된다면 수탉과 여우 사이의 이야기는 모두 행동 중심적(action-oriented)으로 구성되어 이야기의 흐름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 또한 유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간결하고 유기적인 이야기 구조만 유지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동물 우화에서처럼 화자인 신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의도 역시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신부가 말하는 '알곡,' 즉 교훈적이거나 종교적 가르침(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통적 동물 우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동물 우화에서 화자는 일반적으로 권위적이며 전지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독자는 화자의 의도나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뿐이다. 우화에서 화자와 독자의 서로 상반된

태도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연적인 본성과 같은 동물의 추상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묘사, 플롯의 단순함과 간결함, 반복과 변이의 기법, 그리고 ‘행동 중심적’ 내러티브 스타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활하고 힘이 센 여우가 먹잇감으로 수탉을 공격하고, 여우의 교활함에 스스로가 넘어가며 이로 인하여 수탉이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는 결론을 당시 식자층(識者層)의 독자라면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이야기의 흐름은 물론 동물들의 본성을 독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 우화처럼 간결하고 단순한 전통적인 내러티브에서의 경우 독자의 비판적이며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갈 만한 이야기 속 ‘기능적 사건들’(functional events) 사이에 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자의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독자는 이야기의 의미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능력보다는 전지적이며 믿을 만한 화자를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동물 우화에는 독자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의 주관적 판단을 내릴 만한 여백이 없을 뿐더러, 화자 역시 앞서 언급한 기법들을 동원하여 독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러티브 속 의미나 관점이 다양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의미나 관점의 모호함이나 해석의 다양성이 배제된 동물 우화에서 독자는 화자가 마지막에 전달하는 교훈은 절대적인 것으로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설령 3187행부터 「신부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에서 벗어나는 주변적인 요소들을 삭제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인다. 진정 전통적인 동물 우화를 염두에 두고 초서가 이 부분을 썼다면 이야기는 3417행 “그리고 이내 쳄티클리어는 나무 위로 높이 날아가 버렸다”(And heighe upon a tree he fleigh anon) 근처에서 끝나어도 충분했으리라 보인다. 굳이 화자, 쳄트클리어 그리고 여우의 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각각의 경험을 토대로 각자가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이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쓰인 작품이라면 동물 우화만의 독특한 내러티브 패턴과 우화 속 화자의 역할에 의해 이야기 속 도덕적 교훈

이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하나의 교훈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와는 다르게, 3187행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에는 화자는 물론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각각 제시하는 서로 다른 도덕적 교훈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 어느 하나가 중심적인 가르침으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인지 화자인 신부는 순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
 여우나 수탉, 그리고 암탉에 관한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 모두는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맹이를 취하고 겨를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But ye that holden this tale a folye,
 As of a fox, or of a cok and hen,
 Taketh the moralite, goode men.
 For seint Paul seith that al that writen is,
 To oure doctrine it is ywrite, ywis;
 Taketh the fruyt, and lat the chaf be stille. (3438-43)

일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독자에게 주입하는 전통적 동물 우화 속 '권위적'(authoritative)이며 전지적인 화자와는 달리 신부는 해석의 주도권을 독자에게 넘기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부의 행동은 '권위적'이며 '단선적'(monologic)인 스타일의 동물 우화 대신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최종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독자에게 이야기 속 의미나 관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부여하는 신부의 태도는 『캔터베리 이야기』 속 내러티브의 화자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캔

터베리 이야기 속 일부 이야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화자들은 신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장이나 관점을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주입하는 경향을 꺼린다. 다시 말해서, 시인 초서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독자가 하나의 사실이나 진리가 내재된 정형화되고 박제(剝製)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끊임없는 ‘교섭’(negotiation)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픽션’ 자체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서는 전통적인 내러티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 기법들을 동원하여 화자에게 ‘권위적’ 혹은 ‘전지적’ 자세를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자를 단순히 허구를 전달하는 거짓말쟁이로까지 전락시키기도 한다. 놀란(Barbara Nolan)의 주장처럼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하나의 진리나 이념을 전달하는 절대적인 안내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캔터베리 이야기』 속 화자들은 허구적인 내용들을 독자에게 전달할 뿐이며 언어 기호의 집합체인 텍스트 안에 내재된 최종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인 셈이다(154-69).

실제로 전통적인 동물 우화 속 화자와는 달리 신부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석의 주도권을 독자에게 던지며 독자 스스로 이야기 속에서 ‘알곡’을 찾으려 요구하는데, 화자로서 그가 독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지시를 있는 그대로 따를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성직자로서 신부가 여관주인이 제시한 ‘즐거움’과 ‘교훈’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동물 우화를 이야기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당시 독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당시 성직자들이 동물 우화에 내재되어 있는 교훈적이며 종교적 가르침을 설교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는 도중에 우화를 성직자가 사용하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설정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설교에서 신도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우화가 당시 교단에서 사용되었긴 하나 성서 대신 성직자가 거짓의 우화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Owst 80).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신부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랜슬롯에 관한 책만큼이나 이 이야기 역시 사실이다”(This storie is also trewe, I undertake, / As is the book of Launcelot de Lake, 3211-12)라

고 말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이야기 속 “알곡”을 덮고 있는 너무나 많고도 다양한 “왕겨”로 인하여 독자들이 둘 사이의 구분을 못하거나 헷갈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신부가 의도적으로 사도 바오로를 인용해가며 이야기 속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같은 의심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것은 그가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오로의 말 때문이다. 성직자로서 우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 있는 바오로를 화자인 신부가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부가 인용하고 있는 바오로의 말은 원전과는 다르게 신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지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초서는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나의 의도이다”(Al that is writen is writen for oure doctrine and that is myn entente, 1083)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캔터베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철회」(Retraction)에서 다시 한 번 사용하고 있다. ‘픽션’의 공간에서 벗어나 시인 초서의 관점과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철회」에 인용된 사도 바오로의 말과 신부의 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도덕적 교훈을 취할 공간은 우화와 같은 ‘거짓 이야기’(fabular tale)가 아니라 성서(Scripture)라는 점을 말하려는 의도에서 사도 바오로가 한 말인데, 신부는 성직자로서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인 초서가 「철회」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수많은 자신의 “세속적 허영들”(worldly vanitees, 1085)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신부가 말하는 우화가 성직자의 신분에는 더더욱 어울리지는 않는다. 만약 신부의 말대로 글로 쓰인 모든 것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캔터베리 이야기』의 말미에서 초서가 독자들에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신부의 ‘해석학적 요구’에 대하여 여관주인은 저속해보일 정도의 성적인 이미저리를 사용해가며 신부에게 모욕적인 응수를 한다. 여관주인의 태도는 성직자로서 신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의 말대로 진정 도덕적 가르침을 위한 것인지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의심하게 만든다. 전통적 동물 우화라는 기본

적인 틀만을 사용했다 뿐이지 다양한 시적 장치와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장르의 ‘픽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자의 말에 대하여 독자가 신뢰할 수 없음을 여관 주인의 냉소와 비웃음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닝(Stephen Manning)의 지적처럼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fact)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교훈에 집착하는 신부의 태도가 순례 독자들 가운데 누구보다 현실적이며 이야기꾼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평가를 내리는 여관주인의 눈에 발가벗겨지고 있는 셈이다(“Fabular Jangling” 8-9).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신부는 전통적 동물 우화의 “알곡”을 신뢰할 수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권위 있는 화자이기 보다는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속 다른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허구를 전하는 이야기꾼에 불과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이야기 또한 독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만한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나 가치를 지닌 ‘도덕적 이야기’(moral exemplum)가 아닌 ‘의미의 모호함’내지 ‘관점의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한갓 문학적 ‘픽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확장의 기법(expansionary tactics)과 텍스트의 열림(openness of text)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플롯, 내러티브 스타일 및 화자의 역할에 따라 ‘신부의 이야기’가 쓰였다면 독자의 역할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독자가 찾아야 할 교훈 역시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독자가 교훈을 찾아가는데 절대적이며 권위적인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부의 이야기의 3187행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텍스트 의미의 모호함과 관점의 다양성을 유발시키는 이른바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이 3187행 이전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우화처럼 ‘신부의 이야기’가 ‘행동 중심적’(action-oriented)으로 이루어져 플롯의 흐름과는 관계없는 화자의 빈번한 개입이나 다양한 인용 및 수사학

적 표현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한 사건에 이어 다른 사건이 이어진다면 독자의 개입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신부의 이야기」에는 “알곡”과 이를 둘러싼 “왕겨” 가운데 어느 것이 중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심지어 화자가 이야기 도중 독자에게 교훈을 제시하는 것도 자신의 빈번한 개입,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들과 시적인 기교들 때문에 동물 우화의 본질인 교훈이 독자에게 쉽게 들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부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을 전통적인 내러티브 속에 가미시킴으로써 이야기를 ‘부풀리는 스타일’(amplifying style)은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 속 대부분의 내러티브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내러티브의 흐름을 다소 더디게 하는 효과를 넘어 텍스트의 열림 현상, 즉 텍스트 안의 의미나 관점의 ‘불확정성’(indeterminacy)과 다양성을 독자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내러티브 스타일은 이야기에서 화자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서만의 독특한 기법에 해당한다. 당시 독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초서의 독자들 대부분이 여러 차례 이야기꾼들 가운데 가장 신뢰를 보낼만한 기사(the Knight)나 시골유지(the Franklin), 심지어 시골사제(the Parson)가 전달하는 이야기에서조차도 초서는 독자가 이들 이야기에 수동적으로 빠져들어 화자의 관점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초서의 내러티브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교섭’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의 목소리나 관점이 우위를 차지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구분하고 개인의 비판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독자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이야기」를 비롯한 『캔터베리 이야기』 속 내러티브에서 전문적인 이야기꾼으로서 초서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초서의 다른 내러티브에 비하여 「신부의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 외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동물

우화 고유의 스타일과 효과가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이다. 마치 전통적 우화의 기본적인 틀에 우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수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이른바 ‘교배’(hybridization) 시킴으로써 초서는 새로운 ‘픽션’을 만들어내고 있어 보인다. 아울러 ‘픽션’ 속에서 ‘텍스트의 열림’ 현상과 독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질적 요소는 챌티클리어를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미망인’(povre widwe)에 대한 상세한 묘사이다. 특이하게도 작품에서 그녀가 기르는 수탉과 암탉, 그리고 양이나 개와는 달리 그녀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보통은 전통적 동물 우화에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초서는 작품의 시작부터 독자의 기대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독자의 기대는 “옛날 옛적에”(once upon a time)로 시작되는 일반적인 동물 우화와는 달리 ‘사실주의’(realism)에 입각한 시·공간 그리고 미망인에 대한 초서의 소개에서 또 한 번 흔들린다. 특히 챌티클리어를 소개하기에 앞서 미망인의 식습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녀의 생활 습관은 물론 그녀 소유의 농장에 대하여 동물 우화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여 초서는 매우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동물 우화의 주인공인 챌티클리어를 보다 현실감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이야기를 ‘도중에’(medias res) 시작하기 보다는 시작으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부는 여겼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사실적인 근거 속에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는데 집착하는 신부의 태도를 감안할 때, 여우가 수탉을 물고 숲으로 도망치는 장면에서 이를 뒤쫓는 미망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자연스럽지도 일관되지도 않다고 신부는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부가 묘사하고 있는 미망인의 생활 습관은 챌티클리어의 생활습관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2821-46). 예를 들어, 미망인이 살고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a narwe cotage)과 챌티클리어의 “궁전”(halle)은 물론 그 안에서 그녀가 영위하는 “매우 단순한 삶”(a ful symple lyf)과 챌티클리어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바람직한 종교인의 삶을 연상시키는 미망인의 삶과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대죄인 자만(pride)을 범하고 있는 챌티클리어의 삶과의 대조를 통하여 신부는 독자에게 나름의 종교적 메

시지를 제시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의 기대나 판단 역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망인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또 한 번 꺾이게 된다. 작품 속 동물들이 보여주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미망인의 지혜와 종교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야기의 시작 부분과는 달리 여우를 뒤쫓는 미망인의 모습은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셸러스(Paul Shillers)의 주장처럼 여우를 추적하는 무익한 일에 그녀가 보여주는 신경질적인 모습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한계인지 모른다(334). 이야기 시작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미망인에 대한 묘사는 얼핏 독자를 처음부터 화자가 “알곡”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기 위한 첫 번째 힌트이며 안내판처럼 보이나, 오히려 독자를 시작부터 혼돈에 빠지게 하며 화자의 안내를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

“알곡”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독자의 혼돈은 「신부의 이야기」에서 ‘확장의 기법’이 가장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쉐트클리어와 퍼텔롯(Pertelote)의 대화에서 절정에 이른다. 꿈을 두고 둘 사이의 밀고 당기는 공방은 피상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신부의 이야기」가 전통적인 동물 우화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권위적’이며 ‘단일한’(monolistic) 의미나 해석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동물 우화와는 다르게 340행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꿈과 관련한 둘 사이의 공방은 이른바 ‘다성적 목소리’(multiplicity of voices) 혹은 ‘의미의 불확정성’(semantic indeterminacy)을 이끌어낸다. 사물이나 사건에는 하나의 진리나 가르침만이 내재되어 있기 보다는 둘 사이의 대화는 누구의 관점이 옳고 그름을 해결 해주기보다는 상반된 관점과 주장들이 함께 어울려져 이른바 ‘대화적 담론’(dialogic discourse)을 형성한다. ‘무엇’(What)이라는 하나의 사실이나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 지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인 초서는 수탈과 암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둘 사이의 공방과 대화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초서가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이상적인 태도와 더불어 작품 속 화자의 역할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서는 먼저 찬트클리어의 묘사를 통하여 찬트클리어가 주위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위적이며 남성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장되어 보일 정도로 화려하고 남성적인 외모에 일곱의 첩을 두고 있는 찬트클리어는 미망인의 농장에서 ‘중심’이며 ‘우월함’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의 “울음소리”(crowing)에는 남성적 힘과 권위가 집약되어 있다.

... 그녀는 찬트클리어라는 수탉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 나라 어디에도 울음소리에 있어서 그 수탉에 견줄 만한 것이 없었죠.
 그 수탉의 목소리는 축제 때 교회에서 연주되는
 오르간의 명랑한 소리보다 더 명랑했습니다.
 그 수탉의 거처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일반 시계나 대성당의 시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본성적으로 수탉은 그 도시의
 주야평분선(晝夜平分線)의 각각의 오르내림을 알고 있었는데
 십오 도에 이르면,
 정확히 그 수탉은 울었습니다.

... she hadde a cok, hight Chauntecleer.
 In al the land, of crowyng nas his peer.
 His voys was murier that the murie organ
 On messe days that in the chirche gon.
 Wel sikerer was his crowing in his logge
 Than is a clokke or an abbey orlogge
 By nature he knew ech ascencioun
 Of the equynoxial in thilke toun;
 For whan degrees fiftene weren ascended,
 Thanne crew he that it myghte not been amended. (2849-58)

그의 울음소리는 수탉으로서 본능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흐름을 해석하여 정확한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초서의 언급은 찬트클리어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준다(Scanlon 58). 뿐만 아니라, 찬트클리어는 작품에서 중세시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음악(music), 산술(arithmetic), 기하학(geometry), 그리고 천문학(astronomy)을 두루 섭렵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특출한 동물로 그려져 있다고 휘틀리(Thomas Wheatley)는 말한다(161-62).

그러나 남성적 힘은 물론 학식과 경험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는 찬트클리어가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다. 자신이 꿈의 주체이며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꿈에 대한 나름의 권위적인 해석을 독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트클리어는 꿈의 해석 공간으로 퍼텔롯을 끌어 들인다. 꿈에 대한 나름의 과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 퍼텔롯은 “꿈은 미래를 예시하지 않는다”(Ne do no fors of dremes)는 찬트클리어와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찬트클리어와는 달리 그녀는 수사학적(figurative)이며 알레고리적(allegorical) 해석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체계적인 분석에 의존한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즙들 가운데 붉은 색 즙이 과다 분비(red choleric excess)된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이 꿈이라고 퍼텔롯은 주장한다(2923-35). 또한 우리 몸에 붉은 색의 즙이 과다 분비되는 이유는 과식(過食)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사약(laxative)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2969). 케이토(Cato)에 대한 인용을 제외한 퍼텔롯의 해석은 과학적이며 매우 논리적인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휘틀리의 말대로 “세속적(mundane)이며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133-34). 또 하나 더하자면, 그녀의 해석과 판단은 바쓰의 여장부(the Wife of Bath)처럼 권위적이기보다는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육체 중심의 독자’(carml read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권위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한 듯 찬트클리어의 해석은 경험이나 육체 중심의 현실적이며 세속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권위 있는 오랜 책들, 예를 들어, 케넬름 성인(St. Kenelm)의 전기, 구약성서 속 이야기들(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 매크로비우스(Macrobius)의 꿈에 관한 글들을 인용해가며 꿈이 지닌 예시적 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게다가 이집트와 리디아(Lydia)의 왕이며 헥토르(Hector)와 관련한 이야기 등을 인용함으로써 찬트클리어는 농장에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우회적으로 뽐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인용하며 꿈을 해석하는 찬트클리어의 방법은 퍼텔롯의 해석 방법과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의 해석은 과학적 경험이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이야기 속 모든 것이 신의 개입이나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카탈로그 방식으로 권위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해나가는 것은 중세 시대 학자들이 논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며(Travis 82; Delany 5-6), 자료들을 인용한 다음 찬트클리어는 “심히 두려워해야 할 꿈이 많기 때문이요”(many a dreem ful soore is for to drede, 3109; cf. 3603)라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마무리 짓는다.

하나의 꿈을 두고 벌이는 수탉과 암탉 사이에 공방에는 해석의 방법과 관점의 차이는 물론 각자가 내리는 주장 또한 상반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물론 꿈의 주체인 찬트클리어가 권위적 위치를 포기하고 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과 다른 퍼텔롯을 해석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찬트클리어의 주장이나 관점을 독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꿈에 대한 퍼텔롯의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해석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퍼텔롯의 해석은 찬트클리어를 권위적인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초서는 꿈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나 관점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위를 점한다거나, 어느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상반된 두 개의 관점들 독자에게 단순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 혹은 사건의 진위(眞僞)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다양성’과 ‘의미의 불확정성’을 전제로 전통적인 동물 우화와는 다르게 초서는 독자를 꿈에 대한 대화 속으로 이끌고 있다.

심지어 꿈과 관련하여 수탉이나 암탉이 내리는 주장이나 관점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절대적이거나 초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초서는 암탉과 수탉이 하는 이야기와 독자 사이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암탉과 수탉이 각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를 독자로 하여금 품게 하여 이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초서는 방해하고 있다. 마치 바쓰의 여장부가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인용들이 여장부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거나 원전의 의미와는 달리 왜곡되어 사용됨으로써 독자에게 화자인 여장부를 비판적이며 부정적으로 판단할 빌미를 제공해준다. 마찬가지로 「신부의 이야기」에서 챠트클리어가 인용하고 있는 오래된 책들의 내용 역시 원전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속 상황과 이야기 속 상황이라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챠트클리어는 무분별하게 원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원전에서 챠트클리어의 주장처럼 매크로비우스가 꿈을 믿었던 것이 사실이나 우화나 민담과 같은 거짓 이야기에는 믿을 만한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꿈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매크로비우스의 이름을 언급은 하고 있으나 챠트클리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fable)는 꿈에 대한 챠트클리어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보다는 그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레스스(Croesus)와 안드로마케(Andromache)처럼 로맨스에 불과한 허구의 이야기 역시 꿈의 예언적 성격을 독자에게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인용에 해당한다. 구약 성서 속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는 상황적으로 볼 때, 챠트클리어가 차후 경험하게 될 이야기와 성격이 서로 다르다. 다니엘과 요셉은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챠트클리어는 이야기에서 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게 된다. 독자로 하여금 챠트클리어의 관점이나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닐 뿐더러 챠트클리어 역시 믿을 만한 해설자(commentator)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서는 이야기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보여주기 보다는 화자의 인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자에 대한 독자의 불신은 챠트클리어와 마찬가지로 퍼텔롯의 케이트 인용에서도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퍼텔롯 역시 자신이 인용하는 권위자의 글을 원문의 실제 의미나 상황과는 달리 오직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퍼텔롯이 자신이 인용하고 있는 케이트의 원문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챌트클리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조언으로 “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케이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Thomas 279-80). 원문에서 케이트의 목표는 꿈에서 실현되는 것이니 꿈을 두려워하지 말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말을 사용하였다. 원전의 이 같은 의미를 무시한 채, 꿈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만을 퍼텔롯은 자신의 의도에 맞게 짧게 끊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식자층에 해당하는 일부 독자들은 원전의 전후 맥락이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인용하는 퍼텔롯이나 챌트클리어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서가 의도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챌트클리어나 퍼텔롯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용들에는 원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며 작가 초서는 이러한 충돌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챌트클리어나 퍼텔롯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은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아니라 허위내지 ‘픽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초서는 독자에게 수시로 일깨워준다. 결국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들이 허공에 맴도는 혼돈의 상황에서 나름의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의 비판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위적인 위치를 포기해가며 자신의 관점과는 상반된 주장을 수용하는 꿈의 주체인 챌트클리어, 챌트클리어와 대립적 입장을 세우는 퍼텔롯, 그리고 이들 각각이 인용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어느 하나 진실이 아닌 허위이며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독자의 해석 능력을 시험하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퍼텔롯과 챌트클리어의 공방 속에 독자가 “알곡”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교훈 내지 종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정 시인 초서는 동물 우화의 전통을 살려 「신부의 이야기」에서 도덕적 의미나 가르침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졌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마치 「신부의 이야기」의 화자가 이야기의 말미에서 순례 독자들

에게 던지는 '해석학적 요구' 및 이에 대한 독자의 기대와는 달리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왕겨”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곡”도 다양하지만 이들을 덮고 있는 “왕겨”는 더욱 더 두터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수탉과 암탉 사이 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곡”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왕겨”가 가득 한 느낌이 든다.

특히 페텔롯에 비하여 보다 더 권위 있는 인용들과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 등을 통하여 챌트클리어는 자신의 주장이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챌트클리어가 보여준 것은 ‘꿈이 미래를 예시한다’는 자신의 주장보다는, 매닝의 주장처럼, 자신의 수사학적 능력을 독자는 물론 상대인 페텔롯에게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Fabular Jangling” 4). 농장에서 최고의 남성이며 권위 있는 인물임을 자신감 있게 말로서 과시해 보였을 뿐, 꿈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을 고집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신부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을 풍자하고 있으며, 특히 챌트클리어가 보여주는 꿈의 해석에는 학식에 수반되는 자만심과 거만함이 패러디되어 있을 뿐이라는 데이비드(Alfred David)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225).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 즉 “알곡”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챌트클리어가 다양한 인용문과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이유는 꿈의 대화가 끝난 이후 그가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마치 언변(言辯)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이를 입증하려는 듯 챌트클리어는 페텔롯의 등에 올라 육체적인 우위를 과시한다.

게다가 몇 차례에 걸쳐 꿈은 미래를 예시하는 힘이 있다는 자신의 일관된 주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이라도 하듯이 챌트클리어는 페텔롯과의 육체적 타격을 추구한다.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과 관점이 그릇된 것임을 스스로 입증이라도 하듯이 단번에 서까래에서 내려와 운명을 자초한다. 마치 바쓰의 여장부가 자신의 논지와는 너무도 다르게 이야기의 말미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챌트클리어 역시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이야기가 꿈에 대한 나름의 진지한 주장과

관점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그리고 육체적 유희와 즐거움을 목적에 둔 것처럼 행동한다.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꿈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이나 해석은 독자에게 도덕적 의미나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히 ‘유희’나 ‘즐거움’을 위한 것인양 챗클리어는 말한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제 즐거운 얘기가 해봅시다.
 퍼텔롯이여, 축복을 받으려 하는지
 한 가지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셨소.
 당신 얼굴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당신의 눈 아래는 붉은 장밋빛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오.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여자는 남자를 파멸시킨다는 것에는 진리가 있소.
 이 라틴어는, 여보,
 ‘여자는 남자의 기쁨이요, 남자의 모든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소.”

“Now let us speke of myrthe, and stynte al this.
 Madame Pertelote, so have I blis,
 Of o thyng God hath sent me large grace;
 For whan I se the beautee of youre face,
 Ye been so scarlet reed aboute youre yen,
 It maketh al my drede for to dyen;
 For al so siker as *In principio*,
Mulier est hominis confusio--
 Madame, the sentence of this Latyn is,
 ‘Womman is mannes joye and al his blis.’” (3157-66)

한마디로 챗클리어가 꿈에 대한 장황한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주장이 오직 퍼텔롯에게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넘어 그녀가 자신을 당당

한 성적 상대를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찬트클리어가 보여주는 라틴어의 오역(誤譯)은 스캔론(Larry Scanlon)의 지적처럼 「신부 이야기」의 전반부를 아이러니하게 종합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60). 이는 꿈에 대한 찬트클리어의 해석과 주장이 하나의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 헛된 거짓 말이며, 그의 주장이나 목소리 또한 독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는 한낱 '픽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4. 결론: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교섭

찬트클리어의 이러한 변신은 성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우화를 통하여 교훈이나 가르침을 전달해야하는 강박관념에서 수시로 이야기에 개입하며 교훈을 주입하려는 화자가 이야기의 말미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모두 부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알곡”을 취하고 “왕겨”는 그대로 두라는 화자의 주문은 ‘픽션’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가운데 독자 스스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찬트클리어처럼 신부는 권위적이며 전지적인 자세를 버리고 독자에게 의미 해석의 최종적인 몫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관주인의 독설적인 반응에 암시되어 있듯이, 신부가 진정 독자에게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찬트클리어처럼 학식과 남성적 힘을 겸비한 존재로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신부가 우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신부의 육체와 성적 힘에 대한 여관주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여관주인의 눈에 찬트클리어와 마찬가지로 신부가 자신의 상사인 수녀원장(the Prioress)을 비롯한 여러 수녀들에게 자신의 남성다움과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목적으로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꿈과 관련한 장황하고 화려한 찬트클리어의 설명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 즉 퍼텔롯에게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며 학식과 힘을 겸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여관주인의 눈에 비친 신부의 감춰진

의도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동물 우화와는 달리 「신부의 이야기」에서 도덕적 교훈이 독자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훈을 전달해주는 화자 역시 독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통적인 동물 우화의 내러티브 구조와 스타일에 익숙한 독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신부의 이야기」의 화자나 시인 초서가 말하고자하는 도덕적 교훈이나 가르침이 진정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독자는 품게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혼란과 회의는 이야기의 흐름이 단선적이며 직선적인 전통적 동물 우화와는 달리 「신부의 이야기」에 동원된 이른바 ‘확장’의 기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휘틀리의 표현을 빌자면 확장된 내러티브들, 예를 들어 미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꿈에 대한 수탉과 암탉 사이의 기나 긴 공방 등은 「신부의 이야기」속 ‘알곡’을 찾으려는 독자로 하여금 “일련의 미로 같은 반전과 지그재그로 나있는 길”(a series of labyrinthine turns and switchbacks, 155)을 헤매게 만든다. 또한 미로와 같이 복잡한 길을 벗어났다가도 다시금 해석의 방향을 잃는 곳이 바로 「신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1950년 이래 수많은 비평적 해석이 「신부의 이야기」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신부의 이야기」의 여기저기에 화자는 물론 수탉과 여우, 그리고 여관주인이 내리는 다양한 해석과 교훈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독자가 믿을 만한 것으로 수용해도 좋을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 또한 ‘확장’의 기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석의 모호함이나 다양성은 ‘확장’의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내러티브 기법들을 동원하여 『캔터베리 이야기』속 여타의 이야기들에서도 시인 초서가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초서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진리나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야기는 ‘픽션’에 불과하며 독자에게 전지적 입장에서 특정 관점이나 주장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초서가 진지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독자에게 특정 교훈을 줄 의도였다면, 굳이 『캔터베리 이야기』의 끝에 「철회」(Retraction)를 붙일 이유

가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가 들려준 ‘허구의 이야기’(fictitious tale)에서 벗어나 순례 이야기꾼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시골사제(the Parson)의 입을 통하여 산문체의 진지한 도덕적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독자가 초서의 이야기에서 접하는 것은 화자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쏟아내는 언어 기호들(verbal signs)에 불과한 셈이다. 아울러 시인 초서가 하는 일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호들에 대하여 전지적인 위치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초서가 전문 이야기꾼으로서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확장의 기법’이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교섭’과 ‘담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초서의 ‘이야기하기’와 초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며 「신부의 이야기」 역시 그 같은 핵심이 적용된 대표적인 초서의 작품에 해당한다.

Notes

- 1) 본 논문에 언급된 초서 작품의 모든 인용은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gen. ed. Larry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을 따르며, 본문 괄호 안에 관련 작품의 행수만을 표시하였다.
- 2) 종교적인 근거를 토대로 작품에 대한 도덕적 해석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비평가들로 Mortimer Donovan, “The *moralite* of the Nun’s Priest’s Sermon,” *JEGP* 52 (1953): 493-508; Charles Dahlberg, “Chaucer’s Cock and Fox,” *JEGP* 53 (1954): 277-90; D. W. Robertson, Jr., *A Preface to Chaucer* (Princeton: Princeton UP, 1959), 251-52; Bernard F. Huppe, *A Reading of the Canterbury Tales*, rev. ed. (Albany: SUNY P, 1967), 174-84 참고. 이어 머스커티(Charles Muscatine)와 도날슨(Talbot Donaldson)을 선두로 일부 비평가들은 신부의 해석학적 요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아이러니(irony)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Stephen Manning, “The Nun’s Priest’s Morality and the Medieval Attitude toward Fables,” *JEGP* 59 (1960): 403-16; Jill Mann, “The ‘Speculum Stultorum’ and the ‘Nun’s Priest’s Tale,’” *Chaucer Review* 9 (1975): 262-82; Paul Shallers, “The Nun’s Priest’s Tale’: An Ironic Exemplum,” *ELH* 42 (1975): 319-37; Donald R. Howard, *The Idea of the Canterbury Tal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6), 280-307 참고.
- 3) 초서의 이야기와 과거 전통적인 동물 우화, 특히 Roman de Renart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Paul Shallers, “The Nun’s Priest’s Tale’: An Ironic Exemplum,” *ELH* 42 (1975): 319-37 참고. 특히 트레비스(Peter Travis)와 휘틀리(Edward

Wheatley)는 초서의 이야기가 당시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었던 ‘curricular tradition (practice)’에 따라 쓰였다고 주장한다. “Chaucer’s Heliotropes and the Poetics of Metaphor,” *Speculum* 72 (1997): 399-427; “Commentary Displacing Text: *The Nun’s Priest’s Tale* and the Scholastic Fable Tradition,”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18 (1996): 119-41 참고.

- 4) 본 논문에 사용되고 있는 초서 작품의 우리말 번역은 2007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출판된 이동일, 이동춘 공역 『캔터베리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인 용 문 헌

- 초서, 제프리. 『캐터베리 이야기』. 이동일, 이동춘 공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Chaucer, Geoffrey. *The Canterbury Tales.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7. Print.
- Dahlberg, Charles. "Chaucer's Cock and Fox." *JEGP* 53 (1954): 277-90. Print.
- David, Alfred. *The Strumpet Muse: Art and Morals in Chaucer's Poetry*. Bloomington: Indiana UP, 1976. Print.
- Delany, Sheila. "'Mulier est hominis confusio': Chaucer's Anti-Popular *Nun's Priest's Tale*." *Mosaic* 17 (1984): 1-8. Print.
- Donovan, Mortimer. "The moralite of the Nun's Priest's Sermon." *JEGP* 52 (1953): 493-508. Print.
- Howard, Donald R. *Chaucer: His Life, His Works and His World*. New York: E. P. Dutton, 1987. Print.
- _____. *The Idea of the Canterbury Tal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6. Print.
- Huppe, Bernard F. *A Reading of the Canterbury Tales*. Rev. ed. Albany: SUNY P, 1967. Print.
- Lesley, Kordecki. "Let Me 'Telle Yow what I Mente': The Glossa Ordinaria and the Nun's Priest's Tale." *Exemplaria* 4 (1992): 365-85. Print.
- Mann, Jill. "The 'Speculum Stultorum' and the 'Nun's Priest's Tale.'" *Chaucer Review* 9 (1975): 262-82. Print.
- Manning, Stephen. "Fabular Jangling and Poetic Vision in the 'Nun's Priest's Tale.'" *South Atlantic Review* 52 (1987): 3-16. Print.
- _____. "The Nun's Priest's Morality and the Medieval Attitude toward

- Fables.” *JEGP* 59 (1960): 403-16. Print.
- Narkiss, Doron. “The Fox, the Cock, and the Priest: Chaucer’s Escape from Fable.” *Chaucer Review* 32 (1997): 46-63. Print.
- Nolan, Barbara. “‘A Poet There Was’: Chaucer’s Voices in the *General Prologue* to *The Canterbury Tales*.” *PMLA* 101 (1986): 154-69. Print.
- Owst, G. R. *Preaching in Medieval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P, 1926. Print.
- Robertson Jr., D. W. *A Preface to Chaucer*. Princeton: Princeton UP, 1959. Print.
- Scanlon, Larry. “The Authority of Fable: Allegory and Irony in the Nun’s Priest’s Tale.” *Exemplaria* 1 (1989): 43-68. Print.
- Scheps, Walter. “Chaucer’s Anti-Fable: *Reductio ad absurdum* in the *Nun’s Priest’s Tale*.” *Leeds Studies in English* 4 (1970): 1-10. Print.
- Shallers, Paul. “‘The Nun’s Priest’s Tale’: An Ironic Exemplum.” *ELH* 42 (1975): 319-37. Print.
- Thomas, Paul. “Cato on Chauntecleer: Chaucer’s Sophisticated Audience.” *Neophilologus* 72 (1988): 278-83. Print.
- Travis, Peter. “Chaucer’s Heliotropes and the Poetics of Metaphor.” *Speculum* 72 (1997): 399-427. Print.
- _____. “The *Nun’s Priest’s Tale* as Grammar-School Primer.”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1 (1985): 81-91. Print.
- Wheatley, Edward. “Commentary Displacing Text: *The Nun’s Priest’s Tale* and the Scholastic Fable Tradition.”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18 (1996): 119-41. Print.
- _____. *The ‘Fabulae’ of Walter of England, the Medieval Scholastic Tradition, and the British Vernacular Fable*. Diss. U of Virginia, 1991. Print.

Abstract

Chaucer's Tale and Tale-telling as Reflected in *The Nun's Priest's Tale*

Dongchoon Lee (Daegu University)

Chaucer positively combined the basic plot of old stories with the new skills of tale-telling to create effects like revealing the gap between an “outer story” and an “inner meaning” within the tale. Chaucer's new skills including expansionary tactics exploited in the basic plot of a popular tale serve to accompany his audience as a co-author in understanding his tale. In the Chaucerian narrative, meaning and viewpoint are wrapped and diffusely proliferated with an ostensible story so that it cannot be found by simply following an omniscient narrator's guideline, but through the audience's subjective and critical negotiations with the tale. *The Nun's Priest's Tale* is the case which reveals Chaucer's tale-telling techniques like expansionary tactics and their effects on the audience. The digressive materials intruding upon the basic plot of traditional didactic fable contribute to transforming a brief form of beast fable into an uninterpretable fictitious tale with so many *moralitates*. Moreover, they lead readers to become disoriented in searching for meaning or morality, and even to doubt if *The Nun's Priest's Tale* does not need a moral to justify its existence.

Key Words: *The Nun's Priest's Tale*, beast fable, narrative techniques, tale-telling, readership

논문접수일: 2019.05.16

심사완료일: 2019.06.06

게재 확정일: 2019.06.13

이름: 이동춘 (교수)

소속: 대구대학교

이메일: dclee@daegu.ac.kr